또 또 또… ‘산재 전쟁’ 선포에도 잇따르는 사망사고

광주·전남 상반기 23명 숨져…안전불감증 원인
이달 들어 8명 사망…“체계적인 관리·감독 절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최근 광주·전남 지역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8월에만 올 상반기(23명)의 35%에 달하는 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돼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총 13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광주에서는 총 4명(서구 2명, 북구·광산구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남에서 숨진 노동자는 19명(영암 7명, 장성·담양 2명, 순천·여수·목포·광양·완도·함평·고흥·곡성 1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17명(2명·15명)에 비해 35.3%(6명)가 증가한 수치다.

대불산단이 위치한 영암군은 지난해 1명에서 올해 7명으로 증가했다. 광주도 사망자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앞서 2022년 48명(광주 12명·전남 36명), 2023년 41명(광주 8명·전남 33명), 2024년 42명(광주 4명·전남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는 건설,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몰리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지게차 전복, 감전, 질식, 추락 등 예방이 가능한 사고 유형이다.

특히 3분기에 접어드는 8월부터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순천시 서면 순천일반산업단지 A레미콘 공장에서 간이탱크 내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현장에서 구조된 공장장(60)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의식을 찾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화순군의 한 지방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패널식 옹벽 설치 작업을 하던 70대 작업자가 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20일 나주시 운곡동의 한 동물사료 공장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배합기를 수리하던 직원 2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순천시 별량면 소재 한 금속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도 기계 깔림 사고로 숨졌다.

14일에는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B씨가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10일 고흥군 두원면 한 새우양식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절연장갑 없이 일하다 감전돼 숨졌다.

양식장 청소를 위해 물을 빼내는 작업 중 부유물과 찌꺼기 제거를 위해 정화조에 들어갔던 베트남 국적 30대 C씨가 감전됐고, 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태국 국적 20대 근로자도 감전돼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9일 오전에는 곡성군 곡성읍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30대 D씨가 과수원 농로에서 전복된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등 이달 들어 전남 산업현장에서 7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 밀착 관리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과 협업,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등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산업현장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두 아들 살해한 40대 친부 무기징역 구형

빚을 핑계로 전남 진도 해상으로 차량을 돌진해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동갑인 아내 B씨의 자살을 방조하고, 고등학생 자녀 C군(17)과 D군(19)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철근 배근자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빚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이러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이후 아내와 함께 수면제, 피로회복제를 준비한 뒤 가족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5월31일 숙박업소에서 아들 둘에게 수면제를 탄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그는 이튿날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해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켰다.

하지만 공포심을 느낀 A씨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혼자 차에서 빠져나와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자신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의 차량을 타고 2일 오후 6시께 광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44시간 만에 서구 양동시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재판부는 홀로 살아남은 경위와 범행 직후 가족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 등을 심문했다. 또 또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A씨와 변호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9월19일 오후 2시께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임영진 기자

대학생들의 AI·로봇 개발 도전기 광주과학기술원은 AI융합학과 주관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된 ‘2025년 제9회 GIST AI 창의융합경진대회’ 시상식을 지난 21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 9개 대학에서 선발된 학부생 24명이 9개 팀을 구성해 참가했다. AI 창의융합 자율프로젝트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슬램덩크(SLAM DUNK)’ 팀. 사진제공=광주과학기술원

테니스장 이용료 챙긴 공무원, 항소심도 유죄

58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800만원을 가로챈 광주 남구청 공무직 공무원의 유죄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광주 남구청 공무직 공무원 A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159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낸 사용료 584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남구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구청 사무실에서 시설 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 사용료를 본인 계좌번호로 납부하도록 했다.

A씨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공의가 돌아온다…진료 정상화 ‘기대감’

복귀 지원율, 전남대병원 63%·조선대병원 76%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났던 광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24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상급 연차·레지던트 1년 차·인턴)를 모집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채용에서 인턴 108명, 레지던트 1년차 102명, 레지던트 상급년차 180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본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성가롤로병원, 여수전남병원 등으로 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 등 전방위적인 모집이 이뤄졌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모집 정원 중 63%를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대학교병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조선대병원은 응급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레지던트 상급년차 총 79명, 레지던트 1년차 45명, 인턴 35명 등 총 159명 모집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인턴·레지던트 모집 정원 대비 76%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모집 정원 159명 중 120여명 수준이다.

두 대학병원 모두 그동안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하거나 극소수에 그치는 등 사실상 여러 차례 채용 실패로 빚어졌던 의료공백을 이번 채용으로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두 대학병원 모두 전공과목별 지원 현황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 미달인 진료과에 대해서는 추가 충원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수급이 일정 부분 이뤄진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50%로 제한됐던 외래 진료와 환자 입원, 급감한 수술 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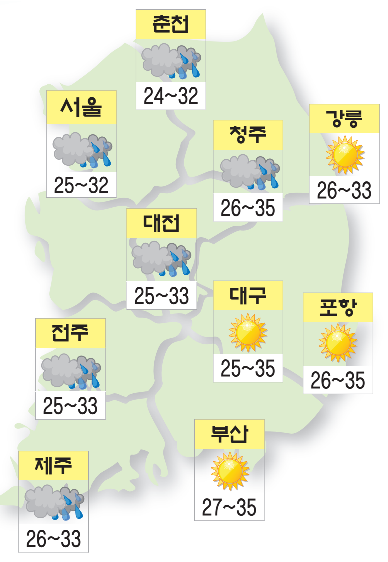
한편,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부여하면서 인턴의 경우 필기시험을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하고, 2024년 사직 전공의가 같은 해 합격한 병원·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복귀 대책을 세웠다. 이산하 기자

SOCIETY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

해뜸	06:00	달뜸	07:41
해짐	19:09	달짐	20:08



지역	날씨	기온
광주		25~33
목포		26~31
여수		26~31
순천		24~33
구례		23~33
해남		24~32
완도		25~33
흑산도		25~31
고흥		24~33
진도		24~31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 전남

목포	밀물 (고)	03:39 / 15:43
	썰물 (저)	08:44 / 20:51
여수	밀물 (고)	10:19 / 22:36
	썰물 (저)	04:05 / 16:15

‘고장난 신호등’ 사고…운전자 책임

만년필

○…신호등이 꺼져있으면 운전자는 미리 대비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5154만원을 청구한 구상금 소송을 기각.

광주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맞춰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추돌. 당시 해당 교차로의 신호등은 고장으로 소등된 상태였다고. 이에 재판부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

재판부는 “신호등이 소등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고장을 인지하고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다”며 “신호등 소등이 곧바로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